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음 9월 17일) 제166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2016인분 고추장 비빔밥

지난 14일 제11회 순창 장류축제가 열리고 있는 순창군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2016인분 고추장 비빔밥'을 비비고 있다.

도내 일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이용실태

사용불가 업종에서 1188건 잘못 사용

주점 199·종합병원 7·주류판매점 428건 등
추정은 94건... "처벌 등 자구책 마련 매진해야"

도내 일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일부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활용해 주점과 카페, 일바, 종합병원, 치과 등을 버젓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에서 결제를 진행해도 대부분 추징이 이뤄지지 않아, 허술하게 관리 감독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8개월 동안(2015~2016년 8월) 도와 14개 시·군이 청백-e시스템에 적발돼 사후에 추징된 금액이 5억9,5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만 2,491건에 달했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 또는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해 비리징후 또는 행정착오에 대해 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오류 등을 사

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에만 도와 14개 시군에서 청백-e시스템을 통해 관리 받는 항목 중 부적절한 의심사례로 걸려진 횟수는 8,380건에 달했다. 이중 1,666건이 실제 부적정 사례로 분류돼 3억8,692만 원이 추징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6,208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이중 825건(2억8,858만 원)이 추징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도내 공무원의 청렴도를 의심받게 하는 사례들도 포함됐다. 도내 지자체는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에서 총 1,188건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점에서 199건의 법인카드가 사용됐고, 카페테일바 7건, 주류판매점 428건, 종합병원 108건, 일반치과·한

의원 3건, 의원 72건, 기타레저업 103건 등이 포함됐다. 모두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들이다. 부적정 사용이 확인돼 추징된 사례는 94건(411만원)에 불과했다. 주점에서 199건의 법인카드가 사용됐으나 이 중 20건만이 추징됐고, 카페테일바 역시 7건 중 1건만이 추징이 이뤄졌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들의 빈곤함이 더해가고 있음에도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단란주점에서 국민의 혈세를 술잔에 부어가며 불법적인 향락을 일삼고 있다"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대부분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처벌과 시스템 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

도, 대한민국 SNS대상 수상

광역지자체부문... 인터넷 방송국 활용 등서 호평

전북도가 '2016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4면) 전북도는 지난 14일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헤럴드경제가 주최한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SNS대상은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운영 내용을 종합 평가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개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는 올 7월부터 8월까지 정량평가와 전문가 및 내부 기관평가, 사용자 평가를 종합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전북도 SNS는 도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관심있는 전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여행, 축제 등

전북도내 명소 곳곳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사진·이미지 뿐 아니라 자체 인터넷 방송국 '생생TV'의 드론영상 등을 적절히 활용해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2009년 블로그를 시작으로 2010년 트위터와 페이스북, 2015년에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운영에 총 20여만 명의 팬을 확보하고 있다. 전북도청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은 "소셜미디어가 다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에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외연을 확장했다"면서 "앞으로 웹드라마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로 전북도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민형 기자

17개 광역시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 지급

이용호 의원 "경기·대구·제주·강원·전북 순으로 많아"

정부 47개 중앙부처가 징계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90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힌데 이어,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도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26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 임실, 순창)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1,933명 중 절반가량인 961명에게(49.7%) 총 26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 중 중징계자 119명에게 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3억 6,000만 원, 제주시 3억 2,000만 원, 강원도 2억 4,000만 원, 전북도·부산광역시 각 2억 2,000만 원 순



이었다. 상위 6개 광역시도의 경우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북도가 전체 89명의 징계자 가운데 79명(88.8%)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 188명 중 166명(88.3%), 경기 170명 중 137명(80.6%), 대구 159명 중 124명(78%), 강원 112명 중 77명(68.8%), 부산 112명 중 69명(6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47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역시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에서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파란 하늘과 붉은 산과 황금 들만이
수제화처럼 펼쳐지는 곳
지리산 둘레길엔 가을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KBS 1박 2일이
함께 했던 남원
멋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남원시